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the Economic Satisfaction of Korean Retirees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장연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조교수 서지원

Dept. of Consumer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Student: Jang, Youn-Ju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Seo, Jiwo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Social capital theory provides a robust framework for analyzing economic well be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the economic satisfaction of retirees in Korea. The data from the first wave of KLoSA(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were used(n=1,628). SPSS 12.0 was us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after controlling for gender, age, region, housing tenure, and personal income, the social capital of the retirees, including cognitive social capital(trust and reciprocity) and structural social capital(emotional and economic familial support, and a well-developed social network), contributes to increases in their economic well-being. Second, the degree of effect social capital has on well-being varied by gender and age; the effect was also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regardless of the person's age. These empirical

* 주저자: 장연주 (nice5179@snu.ac.kr)

** 교신저자: 서지원 (jtwonseo@knou.ac.kr)

results provide a basis for the institution of policies that help bolster economic well-being for retirees by creating conditions that increase social capital in this group.

Key Words : 사회자본(social capital), 은퇴(retirement), 경제적 만족도(economic satisfaction),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I. 서론

최근 우리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야기될 성장동력의 저하에 직면한 한편, 비자발적인 퇴직이 증가하면서 고용의 불안정성 또한 심화되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과거에 비해 앞당겨진 은퇴시점은 그만큼 길어진 은퇴 이후의 삶의 질 문제에 관한 다양한 사회정책적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하겠다. 2004년 한국노동패널자료의 중고령자 부가조사에서 평균 은퇴시기는 남성이 58세, 여성이 55세였으며,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낮은 53세 수준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5). 이에 비해 '희망'하는 은퇴시기는 남성이 64세, 여성이 62세로 실제 은퇴시기와 대략 6~11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평균수명이 각각 77세, 84세 수준(통계청, 2009)임을 고려할 때, 은퇴 이후 20여 년간 삶을 지속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므로 은퇴는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상당한 기간을 차지한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 경제적 복지는 건강과 더불어 중요한 이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에서 실시한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에 대한 걱정의 대부분은 건강(40.9%)과 노후생활비용(3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러 경험적 연구(강혜원, 2008; 김미혜 외, 2005; 백은영, 2009; 한형수, 2008)에서 경제적 상황이나 경제적 만족도가 은퇴 이후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검증한 바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은퇴관련 연구는 주로 남

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성차에 주목하지 않은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남성에게 있어 일은 자존감과 정체감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며 은퇴 이후에는 그간 일을 통해 획득했던 자원을 잃게 되므로 새로운 생활에의 적응에 당면한다는 생애전이(life transition)의 관점이 있다(강지숙, 2008). 반면, 여성의 시장노동은 가계의 주된 부양이 아닌, 부차적 노동으로 여겨져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물러나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가정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것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여성의 일에 대한 전통적 관점은 최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가에 따라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여성의 은퇴경험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또한 전형적인 정년퇴직의 개념이 사라지고 은퇴연령이 낮아지며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현상은 은퇴기간의 장기화 뿐 아니라 은퇴자 집단 간의 연령차를 크게 한다. 이는 최장 30세 이상의 연령차가 있는 비동질적인 은퇴자 집단이 동시대에 존재함을 의미하므로 연령이나 세대에 따른 세분화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조기은퇴자나 연소노인, 중장년층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지경·송현주, 2009; 서지원, 2008a; 서지원, 2008b; 이가옥·이지영, 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와 더불어 은퇴자 간 연령이나 세대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은퇴자의 경제적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측면 가운데, 본 연구는 사회자본의 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회자본은

인적자본과 더불어 신뢰나 유대를 통해 사회통합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이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과거 전통적 복지론과 차별화되는 ‘사회투자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하여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자양분을 주어 사회적 실체인 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는 것이 국가의 주요 경제전략으로 강조되고 있다(임채원, 2006).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이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연령과 성별에 따라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시장노동에서 벗어난 은퇴시기의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효과를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차별적 특성을 가지는 은퇴자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써 가족, 노동, 경제 및 사회 등 다양한 은퇴자 관련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

우리사회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조기퇴직 현상이 확산되면서 노년기뿐만 아니라 중장년기 은퇴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은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최근 은퇴자의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은퇴자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다수의 연구(강인, 2007; 김미령, 2006; 김숙경 2004; 김현정 외, 2009; 백은영, 2009; 손종철 2010)

에서 공통적으로 경제적 측면이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나 은퇴 이후 생활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즉, 은퇴자들은 은퇴 이후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은퇴생활 적응에 더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자의 경제적 복지에 관한 외국연구(Radner, 1987; Packard & Reno 1989; Ross et al., 1987, 성영애, 1994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로 인구통계학적 변수로서 가구주의 인종, 성별, 연령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백인이 유색인종에 비해, 남성가구주 가계가 여성가구주 가계에 비해,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지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만족도는 경제적 복지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측정에 따라 객관적 만족도와 주관적 만족도로 구분할 수 있다. 객관적 복지는 주로 소득이나 자산, 소비수준 등의 절대수치를 기준으로 한 객관적 지표를 이용하여 경제적 적정성, 안전성 등을 측정하는 반면, 주관적 만족도는 객관적 지표와 관계없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수준의 만족도를 의미한다(강이주 외, 2006). 이처럼 다른 측면의 경제적 만족도는 연구의 목적이나 관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데, 객관적 지표를 이용하여 경제적 복지수준을 측정하는 경우는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가계의 경제적 복지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가족생애주기나 가계의 특수한 상황 등 가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특히 저소득층이나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복지 관련 연구에서는 절대적 지표를 통해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하겠다(Weicher, 1999). 이에 본 연구는 이미 시장노동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절대적 지표로 경제적 복지수준을 파악하기보다 상대적 개념의 경제적 복지를 나타내는 주관적 수준의 경

제적 만족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사회자본의 개념과 구성요소

1) 사회자본의 개념

사회자본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연계된 사람들 사이에서 호혜성의 규범에 바탕을 두고 교환되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자원을 의미한다(Lin, 1982; Coleman, 1988; Bourdieu, 1986). Bourdieu(1986)는 사회자본을 지속적인 네트워크 혹은 상호면식이 제도화된 관계, 즉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는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하고, 특정한 행위자가 누릴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은 자신이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규모와 그 연결망에 포함된 개인들이 소유한 자본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사회자본의 기능적 측면에 주목한 Coleman(1988)은 관찰 가능한 물질적 형태로 체화되어 생산을 위해 투자되는 물질자본이나 지식이나 기술 등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어 가시적이지는 않으나 생산성에 기여하는 인적자본과 달리, 사회자본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 내재하며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구조의 특성에 따라 형성된다고 보았다. 특히 신뢰와 규범을 공유하는 집단인 가족관계와 지역사회에서 축적되는 사회자본이 인적자본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강한 연대의 가족이나 지역공동체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미시적 차원의 사회자본에 관한 Coleman의 논의와 달리,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자본을 논의한 Putnam(1993)은 사회자본을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와 규범이나 신뢰 등 조직구성원간의 상호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동을 촉진하는 요소로 정의하고, 인적자본이나 물질자본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성장을 가져오며 인적자본과 물질자본의 투자 이익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사회자본을 연구한 대표적 학자들인 Bourdieu, Coleman, Putnam의 관점에는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유석춘 외, 2003). Bourdieu는 사회자본을 불평등과 배제의 재생산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이는 어떤 조직이나 집단의 일원이 됨으로써 얻는 이익과 기회에는 경제적·문화적 자본으로 전환되어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사유재의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Coleman은 다소 보수적이고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고, Putnam은 정치경제적 발전과 시민공동체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을 거시적 차원에서의 공동체 정체성, 시민적 참여와 네트워크,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위한 ‘집단지 자산’으로 간주하였다(Field, 2004).

이후 사회자본의 연구를 발전시킨 여러 학자들이 사용한 사회자본의 개념 역시 학자마다 차이를 보인다. Fukuyama(1995)는 Coleman의 논의를 발전시켜 ‘신뢰’를 사회자본의 핵심 요소로 보고 상호성의 규범과 사회적 연결망 속에서 협동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신뢰가 사회적 안정성 유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장에 필수적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Portes(1998)는 사회자본을 연결망이나 사회구조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혜택을 확보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사회자본의 근원을 ‘완성적 동기(consummatory motivation)’와 ‘도구적 동기(instrumental motivation)’로 구분하였다. 이때, 완성된 동기란 도덕적 의무감에 의해서 행동하도록 하는 개인의 내면화된 규범이 집단의 사회적 자본으로 나타나게 된 경우를 말하며, 도구적 동기는 상호성의 교환과 공동체적인 의무감 등에 의해 발생하는 강요된 교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자본 관련연구를 종합하여 OECD(2000)는 사회자본을 집단 내 혹은 집단 간의

상호협력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규범, 가치, 이해의 측면에서 정의하고, 이러한 사회자본이 사람들 간의 관계 및 집단에 의해 공유되므로 공공재적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인적자본이나 물질자본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2)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사회자본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며 개별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구성요소의 설정에 다소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측정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박세경 외, 2008; 안성호·곽현근, 2004; 안우환·김경식, 2005; 장충권, 2005; 홍영란 외, 2006)에서 주요 구성요소로 포함된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이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다는 데 기인한다. 상호작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사회구조를 구성하게 하므로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의 형성과 축적에 있어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부정적 측면에서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leman(1988)은 네트워크의 폐쇄성이 강할수록 구성원 간의 규범과 신용이 증가하므로 사회자본의 축적에 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Portes(1998)는 공동체의 네트워크가 긴밀하고 폐쇄적일수록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하고 기업가정신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크기, 범위, 밀도, 다양성 등과 같이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사회자본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회자본 논의에 있어서 그 구성요소로서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필수적이다(안성호·곽현근, 2004). 둘째, 신뢰는 사람간의 관계에 내재하여 관련

행위자 간의 교환을 통해 창출되고 협동, 감시, 통제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사회적 안정과 결속, 협력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한다(박찬용, 1999; 안우환·김경식, 2005). 국가의 노후 보장에 대한 은퇴자의 신뢰수준이 높은 경우 은퇴자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들어야 하는 시간, 노력, 금전적 자원 등 심리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경제적 안전감을 획득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국가에 대한 높은 신뢰를 통해 조성된 사회적 연대감, 결속, 협력 등 노후 보장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소모적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의 조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사회자본은 신뢰에 기반을 둔 호혜의 규범에 의해 형성되고(Emerson, 1981), 이러한 호혜의 규범은 협력행동에 참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Putnam, 2009). 호혜성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두터운 상호 신뢰가 공유된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규범으로서 집합적 자산으로서의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핵심요소가 된다. 또한 호혜성은 당사자가 아닌, 같은 집단에 속한 제3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당사자들만의 교환관계가 아닌 집단 전체의 교환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호혜성은 신뢰의 수준을 높게 되며, 호혜성이 형성되지 못하면 신뢰가 감소된다(장충권, 2005).

이처럼 사회자본의 핵심요소인 네트워크, 신뢰 및 호혜성을 본 연구에서는 신뢰와 호혜성을 인지적 사회자본으로, 네트워크를 구조적 사회자본으로 보고 각 사회자본의 구성요소가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 사회자본과 경제적 만족도

사회자본의 경제적 효과는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사회자본은 조직내 구성원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이로 인해 조직의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박희봉, 2002), 정서적 지원과 더불어 자원사용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여 정체감을 재강화하는 역할을 하므로 인간행동의 산출(output)을 향상시킨다(Lin 2001). 사회자본은 신뢰를 통해 거래비용 및 정보탐색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지니고(Burt, 2007), 규범이나 사회통제를 통해 사람들이 공익을 추구하도록 격려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한다(Portes, 1998).

사회자본은 조직이나 지역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OECD, 2001)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다. 이러한 사회자본의 경제적 효과는 최근 정책적 투자의 필요성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사회자본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원으로 기능하여 지역공동체가 하나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유효유’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자본은 타인에 대한 믿음과 자기성찰을 통해 개인적인 삶의 질 개선이나 인류 전체의 문명에 대한 관점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며, 연결망을 통해 유용한 정보의 흐름을 촉진시킨다. 사회자본이 풍부한 지역사회 공동체는 범죄율이 낮으며 주민의 건강수준이 높고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와 성취도가 높으며, 지역사회에 축적된 사회자본은 지역공동체 내의 경제활동에 기여하여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나영선 외, 2005).

이와 같은 거시적 차원의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다수의 연구(서지원, 2008a; 서지원 2008b; Edin, 1991, Hao & Brinton, 1997; Pavetti, 1993)에서 사회자본은 개인이나 가계의 경제적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자원임이 입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사회자본이 가지는 순기능에 초점을 두고 신뢰 및 호혜성, 개인적 네트워크 및 사회적 네트워크 등의 사회자본이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분석하여 어떠한 차

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의 제1차 패널자료에서, 은퇴자 1,628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소득 및 자산 현황, 개인의 은퇴결정,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건강, 가족 내 소득 이전 등을 파악하여 고령사회를 대비한 제도 개혁 및 정책 결정을 위한 체계적인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중고령자 10,2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항목은 인구, 가족, 건강, 고용, 소득, 자산, 주관적 기대감 및 삶의 만족도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와 사회자본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문제 및 연구모델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인구학적 변수 및 소득변수를 통제할 때,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인구학적 변수 및 소득변수를 통제할 때, 성별에 따라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인구학적 변수 및 소득변수를 통제할 때, 연령에 따라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인구학적 변수 및 소득변수를 통제할 때,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모델

<연구문제 1>을 수행하기 위해 소득 및 인구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하여 다음의 연구모델을 설정하였다.

· 모델 I

$$ES = f(SC; C)$$

이 때, ES=경제적 만족도, SC=사회자본 변수, C=통제 변수.

<연구문제 2>의 연구모델은 다음과 같다.

· 모델 II-1

$$ES = f(SC; C) \text{ [남성 은퇴자]}$$

모델 II-2

$$ES = f(SC; C) \text{ [여성 은퇴자]}$$

<연구문제 3>의 연구모델은 다음과 같다.

· 모델 III-1 $ES = f(SC; C)$

[45세 이상 55세 미만 은퇴자]

· 모델 III-2 $ES = f(SC; C)$

[55세 이상 65세 미만 은퇴자]

· 모델 III-3 $ES = f(SC; C)$

[65세 이상 75세 미만 은퇴자]

· 모델 III-4 $ES = f(SC; C)$

[75세 이상 은퇴자]

<연구문제 4>의 연구모델은 다음과 같다.

· 모델 IV-1 $ES = f(SC; C)$

[45세 이상 65세 미만 남성 은퇴자]

· 모델 IV-2 $ES = f(SC; C)$

[4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 은퇴자]

· 모델 IV-3 $ES = f(SC; C)$

[65세 이상 75세 미만 남성 은퇴자]

· 모델 IV-4 $ES = f(SC; C)$

[65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 은퇴자]

· 모델 IV-5 $ES = f(SC; C)$

[75세 이상 남성 은퇴자]

· 모델 IV-6 $ES = f(SC; C)$

[75세 이상 여성 은퇴자]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는 이론적 배경에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으며, 다음 <표 1>에서 제시하였다. 우선 종속변수인 경제적 만족도는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로 측정되었다. 독립변수인 사회자본은 크게 인지적 사회자본과 구조적 사회자본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우선 인지적 사회자본은 신뢰와 호혜성으로 구분하고, 신뢰는 국가가 노후보장을 얼마나 책임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신뢰수준으로 정의하고 호혜성은 연간 자원봉사 참여횟수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구조적 사회자본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네트워크로 구분하였다. 구조적 사회자본에서 개인적 차원의 네트워크는 자녀의 금전적 지원과 부모·자녀 이외 가족의 경제적 지원 등 경제적 지원과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 자녀와의 동거 여부, 자녀와의 연락빈도 등을 포함한 정서적 지원으로 정의하였고, 사회적 차원의 네트워크는 공식적 모임 참여와 비공식적 모임 참여로 정의하였다.

또한, 인구학적 변수와 소득관련 변수를 통제 후 사회자본의 독립적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제변수에 연령, 성별, 지역, 교육수준, 은퇴직전 고용형태, 자가주택 소유, 연간개인총소득을 모델에 포함하였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변수 | | 조작적 정의 | | |
|----------|-----------------------|---|--|---|
| 종속 변수 | 경제적 만족도 |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 (최소 0 ~ 최대 100) | | |
| | 인지적 사회자본 | 신뢰 국가의 노후보장에 대한 신뢰(최소 0 ~ 최대 100) 호혜성 자원봉사 모임 연간 참여 횟수 | | |
| 독립 변수 | 구조적 사회자본 (네트워크) | 개인적 차원 | 경제적 지원 | |
| | | | 자녀의 금전적 지원 | 용돈, 생활비 등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자녀의 유무 (1=예, 0=아니오) |
| | | | 기타 가족원의 경제적 지원 | 용돈, 생활비 등 금전적 자원 및 현물 등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부모나 자녀 이외의 기타 가족원의 유무 (1=예, 0=아니오) |
| | | 정서적 지원 | | |
| | | 배우자와의 동거 |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1=예, 0=아니오) | |
| | | 자녀와의 동거 | 자녀와의 동거 여부(1=예, 0=아니오) | |
| | | 자녀와의 연락빈도 | 연간 비동거 자녀와의 이메일이나 전화통화 등 연락하는 횟수 | |
| | 사회적 차원 | 사회적 참여 | | |
| | | 공식적 모임 참여 | 정당, 시민단체, 이익단체 등 공식적 모임에 대한 참여 여부(1=예, 0=아니오) | |
| | | 비공식적 모임 참여 | 종교, 친목, 여가,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 비공식적 모임에 대한 참여 여부(1=예, 0=아니오) | |
| 인구학적 변수 | | | | |
| 통제 변수 | 연령 | 만 연령 | | |
| | 성별 | 남성, 여성 | | |
| | 지역 |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부로 구분한 지역 | | |
| | 교육수준 |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이상으로 구분한 학력수준 | | |
| | 은퇴직전 고용형태 | 임시직/일용직/무급가족종사자, 상용직, 고용주, 자영업으로 구분한 고용형태 | | |
| | 자가주택 소유 | 자가주택의 소유 여부(1=유, 0=무) | | |
| | 소득관련 변수 | | | |
| | 연간개인총소득 | 은퇴 이후 자녀 및 기타 가족으로부터의 금전적 지원을 제외한 연평균 개인 소득의 합계(만원) | | |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12.0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

하여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였으며,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 변수의 독립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은퇴자 1,628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먼저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 중 남성은 60.1%, 여성은 39.9%를 차지해 은퇴자 집단에서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평균 연령은 68.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인 경우가 49.3%로 절반 수준이었으며, 고졸(21.4%), 중졸(14.9%), 전문대졸 이상(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대도시(46.3%), 중소도시(34.0%), 읍면부(19.7%)의 분포를 나타냈고, 은퇴직전 고용형태는 상용직(48.7%), 임시직/일용직/무급가족종사자(23.9%), 자영업자(19.6%), 고용주(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74.6%가 자

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연간 개인총소득은 평균 5,961,300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속변수인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만족도 평균은 44.72점 수준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사회자본 수준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지적 사회자본인 국가의 노후보장에 대한 신뢰는 27.25의 수준으로 매우 낮았으며, 자원봉사 참여수준도 매우 낮아 연간 1.37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조적 사회자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자녀의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75.8%인 것에 비하여 기타 가족원의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2.7%)는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는 73.8%,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43.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녀와는 연간 약 190회 정도 연락하고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일 년 동안의 연간 공식적 모임에 10회, 비공식적 모임에 1,140회 참여하였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특성 | 빈도 | (백분율) | 평균 | (SD) |
|-----------------|-------|---------|--------|----------|
| 경제적 만족도 | | | 44.72 | (25.83) |
| 사회자본 변수 | | | | |
| 인지적 사회자본 | | | | |
| 신뢰 | | | 27.25 | (23.94) |
| 호혜성(회) | | | 1.37 | (2.64) |
| 구조적 사회자본 | | | | |
| 자녀의 금전적 지원 | 1,234 | (75.8%) | | |
| 기타 가족원의 경제적 지원 | 44 | (2.7%) | | |
| 배우자와의 동거 | 1,201 | (73.8%) | | |
| 자녀와의 동거 | 705 | (43.3%) | | |
| 비동거자녀와의 연락빈도(회) | | | 189.82 | (180.70) |
| 공식적 모임 참여 | 10 | (0.6%) | | |
| 비공식적 모임 참여 | 1,140 | (70.0%) | | |
| 통제변수 | | | | |
| 성별 | | | | |
| 남성 | 979 | (60.1%) | | |
| 여성 | 649 | (39.9%) | | |

<표 2> 계속

| 특성 | 빈도 (백분율) | 평균 (SD) |
|-----------------|----------------|-----------------|
| 연령 | | 68.50 (8.83) |
| 학력 | | |
| 초졸 이하 | 803 (49.3%) | |
| 중졸 | 243 (14.9%) | |
| 고졸 | 348 (21.4%) | |
| 전문대졸 이상 | 234 (14.4%) | |
| 지역 | | |
| 대도시 | 753 (46.3%) | |
| 중소도시 | 554 (34.0%) | |
| 읍면부 | 321 (19.7%) | |
| 은퇴직전 고용형태 | | |
| 임시직/일용직/무급가족종사자 | 389 (23.9%) | |
| 상용직 | 793 (48.7%) | |
| 고용주 | 127 (7.8%) | |
| 자영업자 | 319 (19.6%) | |
| 자가주택 소유 | 1,215 (74.6%) | |
| 연간개인총소득(만원) | | 596.13 (162.30) |
| N | 1,628 (100.0%) | |

2.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의 모델 I 과 같다. 전체 은퇴자 집단(1,628명)을 대상으로 한 모델 I 의 수정결정계수(Adjusted R²)의 값은 .278로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신뢰, 호혜성, 자녀와의 동거,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 비공식적 모임 참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는 모두 경제적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우선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뢰와 호혜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동거하는 경우, 비공식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참여하는 경우가 경제적 만족도의 수준이 높았다. 또한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제변수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교육수준, 은퇴직전 고용형태, 자가주택 소유여부, 연간 개인총소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별과 지역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졸 이하 집단에 비해 고졸 및 전문대졸 이상 집단의 경제적 만족도 수준이 높았으며, 은퇴직전 임시직이나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 집단에 비해 은퇴직전 상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집단의 경제적 만족도 수준이 높았다.

(표 3) 은퇴자 전체 및 성별에 따른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

| 변수 | 모델 I | | 모델 II-1 | | 모델 II-2 | |
|-----------------------------------|-----------|-------|-----------|-------|-----------|--------|
| | 은퇴자 전체 | | 남성 은퇴자 | | 여성 은퇴자 | |
| | B | S.E | B | S.E | B | S.E |
| 사회자본 변수 | | | | | | |
| 인지적 사회자본 | | | | | | |
| 신뢰 | 0.133*** | 0.023 | 0.124*** | 0.028 | 0.154*** | 0.039 |
| 호혜성 | 0.113* | 0.044 | 0.056 | 0.056 | 0.179* | 0.071 |
| 구조적 사회자본 | | | | | | |
| 자녀의 금전적 지원 | -0.365 | 1.407 | -0.997 | 1.762 | 0.584 | 2.324 |
| 기타 가족원의 금전적 지원 | -0.078 | 3.366 | 0.765 | 4.432 | -0.779 | 5.151 |
| 배우자와의 동거 | 2.033 | 1.505 | -2.642 | 2.278 | 3.129 | 2.144 |
| 자녀와의 동거 | 3.023** | 1.163 | 1.854 | 1.457 | 4.989** | 1.893 |
|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 | 0.016*** | 0.003 | 0.009* | 0.004 | 0.027*** | 0.005 |
| 공식적 모임 참여 | 1.022 | 7.029 | 8.835 | 8.138 | -13.519 | 13.337 |
| 비공식적 모임 참여 | 8.257*** | 1.239 | 9.680*** | 1.531 | 6.043** | 2.079 |
| 통제변수 | | | | | | |
| 성별(기준=남성) | 2.308 | 1.424 | | | | |
| 연령 | 0.005 | 0.072 | 0.187 | 0.096 | -0.155 | 0.115 |
| 교육수준(기준=초졸 이하) | | | | | | |
| 중졸 | 1.597 | 1.682 | -2.195 | 2.083 | 6.953* | 2.884 |
| 고졸 | 7.918*** | 1.603 | 6.138** | 1.882 | 9.531** | 3.136 |
| 전문대졸 이상 | 9.686*** | 1.897 | 6.516** | 2.122 | 18.833*** | 4.474 |
| 지역(기준=대도시) | | | | | | |
| 중소도시 | 1.683 | 1.238 | 2.697 | 1.544 | -0.844 | 2.048 |
| 읍면부 | 0.832 | 1.523 | -1.166 | 1.915 | 3.184 | 2.488 |
| 은퇴직전 고용형태 (기준=임시직/일용직/무급가족종사자) | | | | | | |
| 상용직 | 6.480*** | 1.522 | 8.412*** | 2.171 | 3.910 | 2.230 |
| 고용주 | 5.589* | 2.357 | 6.616* | 2.950 | 4.968 | 4.357 |
| 자영업자 | 4.899** | 1.687 | 4.963* | 2.451 | 4.193 | 2.425 |
| 자가주택 소유(기준=무) | 15.673*** | 1.318 | 17.606*** | 1.705 | 12.406*** | 2.074 |
| 연간개인총소득 | 0.002*** | 0.000 | 0.003*** | 0.000 | 0.002** | 0.001 |
| 상수 | 6.592 | 6.080 | -1.430 | 7.546 | 18.959* | 9.089 |
| Adjusted R ² | 0.278 | | 0.302 | | 0.260 | |
| F | 30.865*** | | 22.171*** | | 12.367 | |
| N | 1,628 | | 979 | | 649 | |

*** p<0.001, ** p<0.01, * p<0.05

3. 성별에 따른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

성별에 따른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남성 979명, 여성 6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3>의 모델 II-1과 모델 II-2의 분석에서 제시하였다.

1) 남성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모델 II-1)

모델 II-1의 수정결정계수의 값은 .302로 나타났다. 남성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변수는 인지적 사회자본인 신뢰, 구조적 사회자본인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 비공식모임 참여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은퇴자의 경우 국가의 노후보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가 많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공식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참여하는 경우의 경제적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통제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교육수준, 은퇴직전 고용형태, 자가주택 소유여부, 연간 개인 총소득이 경제적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여성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모델 II-2)

여성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를 검증한 모델 II의 수정결정계수는 .260로 나타났다. 여성 은퇴자의 경우 인지적 사회자본인 신뢰와 호혜성, 구조적 사회자본인 자녀와의 동거,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 비공식적 모임 참여가 경제적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의 노후보장에 대한 신뢰와 호혜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동거하는 경우, 비공식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참여하는 경우의 경제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를 비교하면, 남성 은퇴자들과 여성 은퇴자들은 신뢰,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 비공식적 모임 참여에 따른 경제적 만족도에 공통성을 보였으며, 여성 은퇴자들은 남성 은퇴자들에 비해 호혜성, 배우자 및 자녀와의 동거여부가 유의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 가족관련 사회자본 변수가 경제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

통제변수에서 교육수준, 자가주택 소유여부, 연간 개인 총소득이 경제적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과 달리 초졸 이하 집단은 중졸, 고졸, 전문대졸 이상의 교육수준 집단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은퇴직전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4. 연령별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

연령에 따른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은퇴자 집단을 45~54세(110명), 55~64세(380명), 65~74세(727명), 75세 이상(411명)으로 나누어 실시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1) 45~54세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모델 III-1)

모델 III-1의 수정결정계수의 값은 .425로 높게 나타났다. 45~54세 은퇴자 집단의 경우 인지적 사회자본 변수의 경제적 효과는 통계적으

(표 4) 은퇴자의 연령별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

| 변수 | 모델 III-1 | | 모델 III-2 | | 모델 III-3 | | 모델 III-4 | |
|-------------------------|-----------|--------|-----------|--------|-----------|--------|-----------|--------|
| | 45~54세 | | 55~64세 | | 65~74세 | | 75세 이상 | |
| | B | S.E | B | S.E | B | S.E | B | S.E |
| 사회자본 변수 | | | | | | | | |
| 인지적 사회자본 | | | | | | | | |
| 신뢰 | 0.007 | 0.101 | 0.128** | 0.045 | 0.125** | 0.037 | 0.170*** | 0.043 |
| 호혜성 | 0.121 | 0.086 | 0.017 | 0.131 | 0.079 | 0.060 | 0.036 | 0.291 |
| 구조적 사회자본(네트워크) | | | | | | | | |
| 자녀의 금전적 지원 | 10.753 | 6.192 | -1.578 | 2.594 | -3.142 | 2.297 | 5.225 | 2.810 |
| 기타 가족원의 금전적 지원 | -1.980 | 14.075 | 5.633 | 5.649 | -1.492 | 5.552 | -5.166 | 6.967 |
| 배우자와의 동거 | 11.828 | 6.848 | 2.117 | 3.095 | 2.069 | 2.332 | -7.138* | 3.087 |
| 자녀와의 동거 | 8.609 | 5.658 | -1.393 | 2.313 | 4.920** | 1.828 | -0.922 | 2.242 |
|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 | -0.002 | 0.025 | 0.015* | 0.007 | 0.019*** | 0.005 | 0.012* | 0.006 |
| 공식적 모임 참여 | -15.821 | 23.475 | -8.996 | 10.623 | 12.477 | 11.409 | 8.312 | 21.547 |
| 비공식적 모임 참여 | 14.686* | 6.018 | 12.574*** | 2.588 | 3.624 | 1.903 | 11.186*** | 2.267 |
| 통제변수 | | | | | | | | |
| 여성 | 4.879 | 5.945 | 6.787** | 2.548 | -1.538 | 2.258 | -3.614 | 3.462 |
| 중졸 | 5.654 | 6.693 | 4.374 | 3.032 | -1.057 | 2.693 | 1.236 | 3.460 |
| 고졸 | 13.486 | 6.856 | 8.803** | 2.919 | 4.888* | 2.451 | 9.175* | 3.623 |
| 전문대졸 이상 | 14.670 | 8.213 | 14.018*** | 3.804 | 9.318** | 2.803 | 6.889 | 3.997 |
| 중소도시 | 5.639 | 4.876 | 0.482 | 2.363 | 3.038 | 1.915 | 0.428 | 2.546 |
| 읍면부 | -7.215 | 7.897 | 3.028 | 3.029 | 1.401 | 2.372 | 0.112 | 2.823 |
| 상용직 | -0.398 | 6.327 | 7.711** | 2.865 | 5.591* | 2.336 | 9.494** | 3.253 |
| 고용주 | 13.486 | 10.252 | 4.779 | 4.536 | 1.524 | 3.638 | 13.076** | 4.721 |
| 자영업자 | -11.315 | 7.435 | 4.663 | 3.566 | 4.355 | 2.627 | 9.799** | 3.129 |
| 자가주택 소유 | 21.375*** | 5.646 | 14.714*** | 2.667 | 12.530*** | 2.059 | 21.133*** | 2.458 |
| 연간개인총소득 | 0.001 | 0.001 | 0.003*** | 0.001 | 0.002*** | 0.001 | 0.002** | 0.001 |
| 상수 | -10.001 | 10.397 | 3.909 | 5.164 | 14.495*** | 3.831 | 5.442 | 5.312 |
| Adjusted R ² | 0.425 | | 0.346 | | 0.217 | | 0.332 | |
| F | 5.020*** | | 11.018*** | | 11.050*** | | 11.166*** | |
| N | 110.000 | | 380 | | 727 | | 411 | |

*** p<0.001, ** p<0.01, * p<0.05

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구조적 사회자본인 비공식모임 참여만이 경제적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비공식적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경제적 만족도가 높았다. 통제변수 중에서도 자가주택 소유만이 경제적 만족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2) 55~64세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모델 III-2)

모델 III-2의 수정결정계수는 .346로 나타났다. 55~64세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사회자본 변수는 신뢰, 구조적 사회자본 변수는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 비공식모임 참여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55~64세 은퇴자는 국가의 노후보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공식적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참여하는 경우의 경제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교육수준, 은퇴직전 고용형태, 자가주택 소유, 연간개인총소득이 경제적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로 나타났다.

3) 65~74세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모델 III-3)

모델 III-3의 수정결정계수의 값은 .217로 나타났다으며, 인지적 사회자본 변수인 신뢰와 더불어 구조적 사회자본인 자녀와의 동거,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가 65~74세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의 노후보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동거하는 경우의 경제적 만족도가 높았다. 통제변수에서 교육수준, 은퇴직전 고용형태, 자가주택 소유, 연간개인총소득이 경제적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4) 75세 이상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모델 III-4)

75세 이상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수정결정계수의 값은 .332로 높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 75세 이상 은퇴자는 인지적 사회자본인 신뢰와 구조적 사회자본인 배우자와의 동거여부,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 비공식모임 참여여부가

경제적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5세 이상 은퇴자는 국가의 노후보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가 많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에 비해 동거하지 않는 경우, 비공식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참여하는 경우의 경제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육수준, 은퇴직전 고용형태, 자가주택 소유, 연간개인총소득이 경제적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로 나타났다.

5) 은퇴자 연령에 따른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

연령에 따라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45~54세 집단은 비공식참여 여부만이 경제적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사회자본 변수로 나타났으며, 통제변수 중에서도 자가주택 소유만이 경제적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어 다른 연령집단과 차이가 있었다. 둘째, 55세 이상의 3개 연령집단에서는 신뢰,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가 공통적으로 경제적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사회자본 변수로 나타났다. 셋째, 자녀와의 동거는 65~74세 은퇴자 집단의 경우에만 경제적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5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배우자와의 동거여부가 경제적 만족도에 오히려 부적 효과를 나타냈다. 넷째, 교육수준과 은퇴직전 고용형태는 5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 모두 유의한 통제변수로 나타났는데,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다. 55~64세 및 75세 이상 집단은 고졸인 경우, 65~74세 이하의 집단은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에 초졸 이하 집단에 비해 경제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퇴직전 고용형태

의 효과도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65~74세 집단은 상용직의 경우, 75세 이상의 은퇴자 집단은 상용직과 고용주의 경우 경제적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성차는 55~64세 집단에서만 나타났는데, 이때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경제적 만족도가 높았다.

5. 연령에 따른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성별 효과

연령에 따른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성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은퇴자 집단을 45~64세, 65~74세, 75세 이상의 3개 집단으로 나누고 각 연령집단을 다시 성별에 따라 나누어 각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5>와 같다.

1) 45~64세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성별 효과 (모델 IV-1/모델 IV-2)

모델 IV-1의 수정결정계수의 값은 .458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델 IV-2의 수정결정계수의 값은 .269로 나타났다. 45~64세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성별 효과를 검증한 결과, 구조적 사회자본인 비공식적 모임 참여는 남성과 여성 은퇴자 모두의 경제적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변수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도 유의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45~64세 은퇴자 집단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달리 자녀의 정서적 지원 효과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과 여성 은퇴자 모두 비공식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참여하는 경우의 경제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교육수준, 은퇴직전 고용형태, 자가주택 소유, 연간개인총소득이 경제적 만족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로 나타났다.

2) 65~74세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성별 효과 (모델 IV-3/모델 IV-4)

모델 IV-3의 수정결정계수는 .216이며, 모델 IV-4의 수정결정계수는 .187이었다. 65~74세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는 남녀 모두 인지적 사회자본인 신뢰의 수준이 높고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가 많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았다. 이에 비해, 남성 은퇴자는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여성 은퇴자는 호혜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에 성차가 있었다.

통제변수의 효과에 있어서도 남녀 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 교육수준, 은퇴직전 고용형태, 자가주택 소유, 연간개인총소득이 경제적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만이 유의한 통제변수로 나타났다.

3) 75세 이상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성별 효과 (모델 IV-5/모델 IV-6)

모델 IV-5의 수정결정계수는 .363, 모델 IV-6의 수정결정계수는 .209로 나타났다. 75세 이상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는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 은퇴자는 국가의 노후보장에 대한 신뢰의 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비공식적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에 경제적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여성 은퇴자는 자녀의 금전적 지원이 있는 경우만이 경제적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도

〈표 5〉 연령에 따른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성별 효과

| 변수 | 45~64세 | | | | 65~74세 | | | | 75세 이상 | | | |
|-------------------------|-----------|--------|-----------|--------|-----------|--------|----------|-------|-----------|--------|-----------|--------|
| | 모델 IV-1 | | 모델 IV-2 | | 모델 IV-3 | | 모델 IV-4 | | 모델 IV-5 | | 모델 IV-6 | |
| | 남성 은퇴자 | | 여성 은퇴자 | | 남성 은퇴자 | | 여성 은퇴자 | | 남성 은퇴자 | | 여성 은퇴자 | |
| | B | S.E | B | S.E | B | S.E | B | S.E | B | S.E | B | S.E |
| 사회자본 변수 | | | | | | | | | | | | |
| 인지적 사회자본 | | | | | | | | | | | | |
| 신뢰 | 0.080 | 0.058 | 0.101 | 0.060 | 0.094* | 0.043 | 0.221** | 0.070 | 0.206*** | 0.051 | 0.089 | 0.081 |
| 호혜성 | 0.512 | 0.373 | 0.133 | 0.071 | 0.045 | 0.060 | 0.658* | 0.319 | -0.019 | 0.279 | | |
| 구조적 사회자본(네트워크) | | | | | | | | | | | | |
| 자녀의 금전적 지원 | 1.391 | 3.045 | -1.394 | 3.500 | -1.811 | 2.708 | -3.552 | 4.453 | 0.948 | 3.567 | 9.720* | 4.825 |
| 기타가족원의 경제적 지원 | 8.598 | 8.506 | 2.584 | 6.768 | 0.577 | 7.157 | -1.131 | 8.970 | -3.130 | 7.422 | -13.466 | 17.312 |
|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 | 9.817 | 5.559 | 3.748 | 3.260 | -3.110 | 3.614 | 5.154 | 3.216 | -7.894* | 3.586 | -8.882 | 6.106 |
| 자녀와의 동거 여부 | -4.210 | 3.046 | 3.993 | 3.065 | 5.305* | 2.217 | 5.571 | 3.251 | -1.933 | 2.631 | -1.186 | 4.422 |
|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 | -0.014 | 0.012 | 0.029** | 0.009 | 0.013* | 0.006 | 0.033*** | 0.009 | 0.011 | 0.007 | 0.015 | 0.012 |
| 공식모임 참여 | -2.416 | 14.775 | -14.653 | 12.915 | 13.825 | 11.230 | | | 7.824 | 20.812 | | |
| 비공식모임 참여 | 15.080*** | 3.202 | 7.712* | 3.598 | 3.005 | 2.329 | 4.162 | 3.346 | 14.521*** | 2.717 | 4.958 | 4.225 |
| 통계변수 | | | | | | | | | | | | |
| 중졸 | -2.257 | 4.386 | 8.855* | 3.649 | -4.656 | 3.158 | 5.358 | 5.670 | 1.434 | 3.704 | 2.247 | 9.574 |
| 고졸 | 7.138 | 3.783 | 11.843** | 3.759 | 3.041 | 2.772 | 8.026 | 5.647 | 8.108* | 3.572 | | |
| 전문대졸 이상 | 9.123* | 4.479 | 17.074** | 5.679 | 6.396* | 3.094 | 21.071** | 7.521 | 4.359 | 3.936 | | |
| 중소도시 | 3.764 | 3.089 | -1.083 | 2.960 | 2.959 | 2.308 | 0.813 | 3.500 | 1.856 | 2.928 | -3.731 | 5.053 |
| 읍면부 | 0.261 | 4.118 | 0.983 | 4.042 | -0.414 | 2.863 | 4.754 | 4.252 | -1.056 | 3.382 | -2.335 | 5.224 |
| 상용직 | 11.509* | 4.605 | 5.115 | 3.241 | 8.974** | 3.070 | 0.219 | 3.737 | 9.609* | 4.360 | 2.753 | 6.048 |
| 고용주 | 11.665 | 6.040 | 1.464 | 6.213 | 3.254 | 4.355 | 2.670 | 7.378 | 9.664 | 5.558 | 24.001* | 12.052 |
| 자영업자 | 8.885 | 5.406 | -3.290 | 4.118 | 4.624 | 3.652 | 5.064 | 3.915 | 6.263 | 4.437 | 15.016** | 4.949 |
| 자가주택 소유 | 18.014*** | 3.613 | 13.895*** | 3.254 | 14.626*** | 2.545 | 5.870 | 3.598 | 21.580*** | 3.023 | 22.408*** | 4.420 |
| 연간개인총소득 | 0.003*** | 0.001 | 0.002* | 0.001 | 0.003*** | 0.001 | -0.002 | 0.004 | 0.002* | 0.001 | 0.010 | 0.011 |
| 상수 | -4.514 | 6.886 | 12.707* | 6.024 | 18.863*** | 4.901 | 11.943* | 5.498 | 8.713 | 6.433 | 4.544 | 7.236 |
| Adjusted R ² | 0.458 | | 0.269 | | 0.216 | | 0.187 | | 0.363 | | 0.209 | |
| F | 10.784*** | | 6.194*** | | 8.009*** | | 4.083*** | | 9.175*** | | 3.410*** | |
| N | 221 | | 269 | | 485 | | 242 | | 273 | | 138 | |

*** p<0.001, ** p<0.01, * p<0.05

남성 은퇴자와 여성 은퇴자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의 경우 학력, 은퇴직전 고용형태, 자가주택 소유, 연간개인총소득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여성 은퇴자는 은퇴직전 고용형태와 자가주택 소유여부는 유의하였으나 연간개인총소득은 경제적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V. 결론

은퇴는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전환기적 사건 중 하나로서, 특히 인생의 후반기를 대표하는 사건으로 간주된다(강지숙, 2008).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조기 은퇴의 확산은 은퇴인구에 대한 사회 전체의 부담을 가

중시하고 있어 은퇴자의 경제적 복지에 관한 문제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1차 고령화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를 검증하고, 은퇴자의 연령 및 성별에 따라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사회자본과 구조적 사회자본은 모두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자원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인지적 사회자본인 신뢰와 호혜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가 높아지고 구조적 사회자본 중 개인적 차원의 네트워크(자녀와의 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와 사회적 차원의 네트워크(비공식적 모임 참여)가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둘째, 사회자본의 효과에서 나타난 성차를 살펴보면, 신뢰나 자녀와의 연락빈도, 비공식 모임 참여는 남성과 여성 모두의 경제적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나, 호혜성과 자녀와의 동거는 여성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만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남성 은퇴자와 달리 여성 은퇴자에게 있어 호혜성이나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이 경제적 효과를 지남을 알 수 있다. 셋째, 연령별 차이를 보면, 54세 이하의 조기은퇴자의 경우 비공식 모임 참여만이 유일한 효과를 보인 반면, 55세 이상 은퇴자의 경우 자녀와의 연락빈도가 경제적 만족도에 정적 효과를 나타냈고, 65~74세 은퇴자는 자녀와의 동거도 정적 효과를 보였다. 즉, 상대적으로 고령층에서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이 경제적 만족도에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동일한 연령집단 내에서도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에는 성차가 나타났다. 64세 이하

남성 은퇴자는 비공식적 모임 참여만이 유의한 효과를 보인 반면, 64세 이하 여성 은퇴자는 자녀와의 동거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 은퇴자와는 달리 개인적 차원의 정서적 지원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65~74세 남성 은퇴자는 자녀와의 동거가 정적 효과를 보인 반면, 여성 은퇴자는 자원봉사 참여로 측정된 호혜성이 정적 효과를 보여, 남성에 비해 여성 은퇴자 집단에서 인지적 사회자본이 경제적 만족도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75세 이상 남성 은퇴자의 경우 신뢰와 비공식적 모임 참여가 경제적 만족도에 정적 효과를 보였으나 배우자와의 동거가 오히려 부적 효과를 보인 반면, 75세 이상 여성 은퇴자의 경우 자녀의 금전적 지원만이 유일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집단에 비해 금전적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요결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함의 및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은퇴자의 경제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인지적 사회자본과 구조적 사회자본의 형성과 축적을 위한 사회투자가 필요하다. 즉, 사회자본의 투자는 개인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기 보다 은퇴 이후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사회자본이 원활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가족환경과 지역사회 여건을 조성하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은퇴 이후 은퇴자 개인의 신뢰와 호혜성의 수준을 제고하고 개인적 및 사회적 차원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것이며, 다양한 고령화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둘째, 이러한 정책적 접근이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

이 요구된다. 은퇴시기가 길어지고 은퇴연령이 다양화되면서 은퇴자 집단은 이질성을 지닌 다양한 계층으로 분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가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은퇴자의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지원은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사회자본의 효과를 고려하여 정책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과제로 개발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가족 간의 결속, 연대, 경제적 지원 등 가족자원이 지니는 사회자본으로서의 의의를 인식하고 이를 반영한 사회투자정책이 요구된다(서지원, 2006). 연령별 은퇴자의 경제적 복지에 대한 사회자본의 성장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과 관련된 사회자본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성별에 따라 자녀와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정서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족정책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인지, 현물이나 금전적 지원에 치중할 것인지, 혹은 정서적 지원 및 경제적 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비중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에 관한 정책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은퇴생활 관련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남성 은퇴자와 여성 은퇴자의 개인 및 가족,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차별적인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다층적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구조적 사회자본을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한 사회적 참여의 효과를 논의하기에 앞서, 비공식적 모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참여율을 보이는 시민단체, 정당, 이익단체 등 공식적 모임을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은퇴자의 사회참여 기회를 다양화하기 위해 개별적인 연고나 자원에 의한 비공식적 모임 뿐 아니라 은퇴 이후 보다 공식적인 모임이나 조직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수준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

록 국가나 지역사회 이외에도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다각적인 사회투자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인지적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호혜성의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자원봉사를 보편적인 은퇴자의 사회참여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성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자원봉사를 은퇴자의 연령이나 성별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외되기 쉬운 은퇴시기의 인지적 사회자본인 호혜성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퇴 이후의 삶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과 성별에 따라 사회자본의 형성 및 축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성된 지역사회 여건은 고령화에 따른 노년기 경제적 복지 증진과 관련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퇴자의 경제적 복지를 위한 사회자본의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은퇴자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였으나, 은퇴자의 경제생활은 주로 가구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후속연구에서는 가구단위의 분석을 실시하여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은퇴가구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구단위의 분석은 연령 뿐 아니라 결혼상태, 자녀의 발달 등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생애주기별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회자본이 무엇인지를 규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양적 연구의 수행과 더불어 은퇴 이후 사회자본이 형성되는 과정 자체에 대한 사례연구의 축적도 요구된다. 특히 은퇴 전후의 네트워크 등의 역동적인 변화와 더불어 사회자본의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를 규명하는 등의 질적 접근 역시 은퇴시기 사회자본의 다면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1) 강이주, 김영신, 허경옥(2006). 알기 쉬운 가계경제학. 서울: 신정.
- 2) 강인(2007). 은퇴 남성 노인의 어려움과 적응에 관한 연구-자아복합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3), 259-283.
- 3) 강지숙(2008). 노인의 은퇴 적응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노년학 28(3), 477-496.
- 4) 강혜원(2008). 한국 중노년 여성의 일, 가족, 그리고 은퇴.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 제1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 301-315.
- 5) 구혜정(2002). 전환기의 평생교육: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만남. 한국교육학연구 8(2), 275-296.
- 6) 김미령(2006). 전기·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및 영향요인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2), 197-222.
- 7) 김미혜, 신경림, 최혜경, 강미선(2005).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삶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회지 20(3), 61-76.
- 8) 김숙경(2004). 농촌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23, 179-202.
- 9) 김승현(2008).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와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42(2), 67-89.
- 10) 김지경, 송현주(2009). 조기은퇴남성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3), 31-43.
- 11) 김현정, 고수연, 정희원, 이지선, 임지영(2009). 고령은퇴남성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253-280.
- 12) 나영선, 이재열, 한준상, 이경옥, 한성안(2005). 사회자본과 인적자본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3) 박세경, 김형용, 강혜규, 박소현(2008).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 형성의 실태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4) 박찬웅(1999). 경쟁의 사회적 구조. 한국사회학 33, 789-817.
- 15) 박희봉(2002). 사회자본과 행정: 사회자본 이론의 논점과 연구경향. 정부학연구 8(1), 5-45.
- 16) 백만기, 우재룡(2005). 은퇴설계와 종업원 복리후생. 한국FPSB.
- 17) 백은영(2009). 은퇴자의 은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노인복지연구 44, 345-372.
- 18) 서지원(2006). 사회자본으로서의 가족자원에 대한 이해와 활용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3), 1-14.
- 19) 서지원(2008a). 노년기 경제적 복지를 위한 사회투자정책의 방향: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31-55.
- 20) 서지원(2008b). 중년기의 경제적 복지에 대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상대적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315-332.
- 21) 성영애(1994). 미국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31-43.
- 22) 손종철(2010). 중고령자 은퇴 및 은퇴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노동정책연구 10(2), 125-153.
- 23) 안성호, 광현근(2004). 동네수준의 사회자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지역정책성과 사회자본. 서울: 다운샘.
- 24) 안우환, 김경식(2005).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열 탐구. 중등교육연구 53(1), 29-50.

- 25) 유석춘, 장미혜, 정병은, 배영(2003). 사회적 자본: 이론과 쟁점. 서울: 그린.
- 26) 이가옥, 이지영(2005). 남성 연소노인의 은퇴 후 적응과정과 노년기 조망에 대한 연구. 한국회복지학 57(1), 93-120.
- 27) 이지영, 최현자(2009). 우리나라 은퇴자의 은퇴자금 충분성과 영향요인: 객관적 충분성과 주관적 인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1), 215-230.
- 28) 임채원(2006).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파주: 한울.
- 29) 장충권(2005).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자본: 연결망, 신뢰, 호혜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30) 통계청(2005), 청년층·고령층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 31) 통계청(2009), 2009 생명표.
- 32) 한국노동연구원(2004). 노동패널 중고령자 부가조사.
- 33)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147.
- 34) 한형수(2008). 노인의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9, 347-372.
- 35) 홍영란, 김태준, 현영섭, 소진광, 이승희(2007). 사회적 자본 지표 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36) Bourdieu(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press.
- 37) Burt, R. S.(1997). The contingent value of social capital.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2.
- 38) Coleman, J.(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4-121.
- 39) Edin, K. (1991). Surviving the welfare system: How welfare recipients make ends meet. Social problems 38, 301-312.
- 40) Emerson, R. M.(1981). Social Exchange Theory, in M. Rosenberg and R. Turner (eds.), Social Psychology: Soci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Academic Press.
- 41) Field, J.(2004). Social Capital. New York: Routledge.
- 42) Fukuyama, F.(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 43) Hao, L., & Brinton, M. C. (1997). Productive activities and support systems of single mothers.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2, 1305-1344.
- 44) Lin, Nan.(1982). Social Resource and Instrumental Action, in P. Marden and N. Lin (eds.), Social Structure and Network Analysis. Beverly Hills: Sage.
- 45) Lin, Nan.(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46) OECD(2000). Human & social capital & sustained growth & development, reconciling new economics & societies: the role of human & social capital. Paris.
- 47) OECD(2001). Cities and regions in the new learning economy. Paris.
- 48) Packard, M. D., & Reno, V. P.(1989). A Look at Very Early Retirees. Social Security Bulletin 52(30), 16-29.
- 49) Pavetti, L. (1993). the dynamics of welfare and work: Exploring the process by which women work their way off welfa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vard University.

- 50) Portes, A.(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et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1-24.
- 51) Putnam, R. D.(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35-42.
- 52) Putnam, R. D.(2009). 나홀로 볼링(Bowling Alone). 서울: 페이퍼로드.
- 53) Rander, D. B.(1987). Money Incomes of Aged and Non-aged Family Units, 1967-84. Social Security Bulletin 50(8), 9-28.
- 54) Ross, C. M., Danziger, S., & Smolensky, E. (1987), Interpreting Changes in the Economic Status of the Elderly, 1949-1979. Contemporary Policy Issues 5, 98-112.
- 55) Weicher, J. C. (1999). Some income measurement issue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9, 29-33.
- 투 고 일 : 2011년 1월 1일
 - 심 사 일 : 2011년 1월 8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1월 28일